

군산시-인도, 상호 교류 확대 논의

타타대우상용차 창립30주년 맞아, 아미트 쿠마르 주한인도대사 부부 군산 방문

강임준 군산시장이 아미트 쿠마르 주한인도대사 부부를 접견하고 환담했다.

지난 11일 강임준 군산시장은 타타대우상용차 창립 30주년 기념식을 맞아 군산을 방문한 쿠마르 대사 부부를 만나 환담하며 군산시와 인도 간의 교류 확대에 대해 논의했다.

강임준 시장은 이 자리에서 “인도 대표 기업인 타타그룹이 상용차를 통해 오랫동안 지역 부품업체와 상생, 고용 창출을 통해 군산 경제 발전에 기여했다.”고 감사를 표했다.

이어 “군산시는 전기차와 이차배터리 산업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발전이 지속되고 있다. 앞으로 이 분야에서 인도와의 활발한 협력을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아미트 쿠마르 대사는 “아름다운 도시 군산을 처음 방문했고, 인도와 군산시가 제조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와 군산



강임준 군산시장(왼쪽)이 아미트 쿠마르 주한인도대사를 접견하고 환담했다.

에서 공부하는 유학생 등을 통해 교류가 확대되길 희망한다.”라고 화답하며 “인도 역시 전기차와 이차전지 분야에 많은 투자를 하는 만큼 군산시와 미래의 협업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현재 군산시는 타타대우상용차와의 인연을 계기로 인도 필리-친화도시, 잠세드푸르 시와 2004년 자매결연을 맺고 상호 방문 등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군산=이재훈 기자



군산시 농업인들의 화합과 상생발전을 도모하는 '제5회 군산시 농업인의 날 기념식' 행사가 12일 월명실내체육관 일원에서 농업인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제5회 군산시 농업인의 날 기념식 개최

우수농업인 표창·오색 가래떡 커팅식 진행 등

군산시 농업인들의 화합과 상생발전을 도모하는 '제5회 군산시 농업인의 날 기념식' 행사가 12일 월명실내체육관 일원에서 농업인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행사는 (사)군산시농업인단체협의회(회장 고평화)가 주관했으며, 농업인의 날을 맞아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고 농업·농촌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농업인의 노고를 기리는 식전 행사를 시작으로, 우수 농업인들에 대한 표창 수여와 지역 농

업인들의 화합과 상생발전을 위한 오색 가래떡 커팅식을 진행했다.

강임준 시장은 “어려운 농업과 농촌의 현실에서도 건강한 먹거리를 책임진다는 사명감과 자부심으로 농업과 농촌을 지키고 있는 농업인들의 한결 같은 노고와 헌신에 감사드린다.”라며 농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군산시에서도 기후변화 및 농자재값 상승 등 다양한 여건 변화에도 안정적인 농가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다각적인 대책 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말했다. /군산=이재훈 기자



호원대 호원사회봉사단, 농촌 일손 돕기 나서

서수면·산북동 일대 봉사

호원대학교(강희성 총장) 호원사회봉사단은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에 걸쳐 군산시 서수면과 산북동 일대에서 농촌 일손돕기 봉사활동을 펼쳤다.

호원사회봉사단은 지역의 고령화로 인한 일손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사회 주민들과 올바른 상호작용을 하기 위해 매년 농촌 일손 돕기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12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이번 봉사활동은 군산시농업기술센터에서 지역사회 농가에 수요를 조사하여 일손을 필요로 하는 군산시 소재 마을 농가 단위로 배정받아 보다 체계적이고 지역사회 주민의 수요에 맞춰 봉사활동을 진행하게 되었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30여명의 호원대학교 학생 및 교직원들은 양배추와 생강, 고구마 작물 수확과 하우스 정리 및 마을 환경정화 등 농가 주민들을 돕기 위해 구슬땀을 흘렸다.

우동훈 총동아리연합회장은 “함께해준 학우들께 감사하며, 농번기를 맞아 바쁜 농가의일손을 도우며 지역사회를 이해하고 농업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는 뜻깊은 시간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호원사회봉사단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Health up 프로그램과 With up 프로그램 등 대학혁신사업의 일환으로 새만금지역 환경정화 캠페인 및 농촌지역 일손 돕기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지역사회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다양한 봉사 프로그램을 추진해오고 있다. /군산=이재훈 기자

‘고품질의 익산 보석, 생방송으로 만나요’

익산시 주얼리 공동브랜드 ‘애드베네’ 라이브커머스 출범...13일 오후 8시, 네이버 쇼핑라이브서 방송

익산시 주얼리 공동브랜드 ‘애드베네’가 첫 라이브커머스 방송에 나선다. 12일 익산시에 따르면 ‘애드베네’는 익산의 주얼리 공동브랜드로 지역 귀금속 산업의 마케팅을 강화하고 경쟁력을 높이고자 만들어졌다. 익산시 귀금속 제조업체의 다양한 고품질 주얼리 제품을 선보인다.

또한,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해 KOLAS 국제공인 시험기관인 (패션산업시험연구원)을 통해 제품의 안정성과 품질을 인증받았다.

애드베네의 첫 시작을 알리는 라이브커머스 방송이 오는 13일 오후 8시 ‘빛나는 스튜디오’에서 시작된다. 빛나는 스튜디오는 지난해 주얼리집적산



업센터에 조성된 주얼리 라이브커머스 방송 전용 스튜디오이다. 소비자들은 네이버 쇼핑라이브를 통해

진행되는 라이브커머스 방송에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 방송은 올해 20회 진행될 예정이며, 다양한 방송 전용 혜택이 제공된다.

익산시는 라이브커머스 방송뿐만 아니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블로그, 누리집 등을 개설해 본격적인 온라인 마케팅 확대에 나선다.

시 관계자는 “이번 라이브커머스 방송이 애드베네뿐만 아니라 보석도시 익산의 이미지를 소비자에게 각인시킬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네이버 쇼핑라이브를 통해 만날 수 있는 이번 방송은 다양한 혜택도 마련된 만큼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익산=이재훈 기자

‘수송동 아나바다장터’ 수익금... “어려운 이웃에 써달라”

군산 수송동 주민자치위, 617만원 전액기부... 지역사회 내 따뜻한 나눔 전파

군산시 수송동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이미아)가 12일, 군산시청을 방문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성금 617만원을 기탁했다. 이번 성금은 지난날 28일 열렸던 2024년 수송동 아나바다 행사에서 먹거리 장터를 운영하여 마련한 수익금이다.

수송동 아나바다 행사는 올해 제16

회로 진행하였으며, 지역주민들이 참여하여 아껴쓰고 나눠쓰고 바꿔쓰고 다시쓰는 행사로 프리마켓 형식으로 운영되었다. 특히 먹거리 부스를 운영한 통장단, 부녀회, 천사누리지역사회협의회는 김치전, 떡볶이, 봉어빵 등을 만들어 판매해 장터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다. /군산=이재훈 기자



수송동 아나바다장터 6,170,000원

지역 소식통

익산시, 철도 연계 상품으로

지역관광 활성화 '박차'

익산시가 철도 연계 관광 운영 선도지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익산시는 ‘지역사랑 철도여행’ 업무협약을 체결한 전국 23개 지방자치단체 중 운영 실적 5위를 차지했고, 전북자치도 지자체 중 1위를 차지했다.

‘지역사랑 철도여행’은 인구감소 지역의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철도 연계 관광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여행 상품은 자유여행과 패키지여행이 있으며, 예약은 렛츠 코레일 누리집(letskorail.com) 또는 모바일 앱 ‘코레일톡’에서 가능하다.

자유여행 상품은 열차를 10% 할인된 가격으로 예약할 수 있으며, 지정 관광지 중 한 곳에서 QR코드를 인증하면 다음달 추가로 40% 할인 쿠폰을 지급받는다. 지정 관광지는 미륵사지, 왕궁리유적, 보석박물관, 교도소세탁장, 아가페정원이다.

패키지여행 상품은 9경3락 익산기차여행과 ‘렌터카타고 떠나는 익산 고백(GoBack)’ 여행이 있으며 별도 인증 없이 50% 할인된 열차 왕복편과 다양한 추가 구성을 즐길 수 있다.

또한 익산시는 숙박비 지원 혜택을 제공한다. 2인 이상이 철도여행 상품으로 익산 관광 2곳 방문과 식사 1식, 지정 숙박시설 1박을 충족하면 1인당 2만원을 지급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전북권 여행센터(063-855-7715)로 문의하면 된다. /익산=이재훈 기자

익산시, 다이로운-모아복합

센터 건립 부지 기부채납식

익산시는 (주)함소아(대표이사 조현주)와 12일 다이로운-모아(모어)복합센터 건립 부지에 대한 기부채납식을 개최했다.

익산시는 지난 9월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오는 2026년까지 신동에 다이로운-모아(모어)복합센터 조성한다.

(주)함소아는 모아복합센터 건립에 필요한 부지 1,006㎡를 익산시에 기부채납했고, 익산시는 행안부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 연면적 990㎡,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로 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다. /익산=이재훈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일제강점기 수탈의 상징

구 군산세관 본관

국가지정 사적 제545호인 구 군산세관 본관은 1908년 단층으로 지은 건물이다. 이 건물은 군산항을 통해 드나들던 물품의 관세를 거두었던 곳이다. 1899년 군산항을 개방한 이후 인천세관 관할에 있던 군산세관은 1906년 인천세관 군산지사를 설립한 이후 이 건물을 완공했다. 붉은 벽돌을 사용해 건물의 외관을 꾸미고 목조를 사용, 내부를 장식했으며, 또한 슬레이트와 동판으로 지붕을 만들고 그 위에 세 개의 뾰족한 탑을 세웠다. 구 군산세관 본관은 건축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일 뿐만 아니라 곡창지대인 호남지방의 곡물을 수탈하는 역사적인 현상이었다는 점에서 후대에게 교훈을 주는 곳이다.

전주매일 캠페인